



Newsletter

2020 Fall

Address:

10 HUNTINGDALE BLVD.
SCARBOROUGH, ON, CANADA M1W 2S5

Phone numbers: +1 647-669-5768

Email: namca.allnations@gmail.com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마가복음 4:35)

21세기 디아스포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있어 “그날 저물 때”와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6,900 여 미전도종족 선교에 있어 교회의 거대한 선교적 불균형이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이 라면, 이들 미전도종족을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 곁에 데려다 놓으시는 디아스포라 현상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발걸음입니다.

신약교회의 태동 이래 열방 구속을 향한 복음의 서진은 10/40 창의 미전도종족에게로 건너가야 하는 마지막 교회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세대에 아직 남아있는 선교 책무로서 미전도종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과 함께 가야 할 우리 시대의 선교의 향로는 어디 있습니까? 그날 저물 때 군대귀신들린 이방의 한 영혼에게로 나아가고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우리 곁에 보내어진 미전도종족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김으로 10/40창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일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고 말씀하십니다.



임재량 목사

주님 말씀 따라 “저편”으로 건너 가려고 디아스포라 선교의 향해 길에 오른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방은 째깍하고 거센 역풍 가운데 도전의 파고들은 높아져만 갑니다. 배 안에는 물이 차 들어와 불편함과 거부함과 힘듦을 넘어 이러다가 바다 한 가운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차 오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던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풍랑과 파도에 맞서 씨름하시지는 않고 배 뒷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향해에서 주님의 안식과 우리의 힘겨운 씨름과의 차이는 대적하는 원수들의 도전과 우리를 방해하는 거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배 뒷편에서 심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사셨기 때문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믿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그 뜻 안에 우리 믿음을 두고 살아갈 때 어둠 속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 보다는 우리 삶에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상황과 문제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같은 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연약함 그대로 부족한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21세기 디아스포라 선교의 시대에 믿음의 기도로 열방 구속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사랑

마문 타룩더 (벵갈리 처치 토론토)

저는 방글라데시의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제 온 마음과 혼을 다해 이슬람 교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부지런히 다 행하고 따랐습니다. 저는 항상 알라를 구했고 제 삶에서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개인 경건을 통해서나 모스크에서나 가정에서나 다양한 의식들과 축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중



마문과 리파 부부

보기도를 통해, 1990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긍휼을 제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알라를 찾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기름부음받으시고 부활하사 살아계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응답하셨고, 저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셨고, 제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고 인격적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제 남은 삶 동안 저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따르기로 믿음의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내 또한 매우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믿음을 떠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항상 마음을 연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 험한 십자가 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아내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아내는 1993년 7월 20일에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으며,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다녔던 같은 게셋마네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청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곧 이 두 자녀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받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제가 지금 핵심 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영어권 회중인 스카보로 침례교회의 교인입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이민해온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벵갈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벵갈리 종족 교회를 세우는 소원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데, 현재 토론토에 두 개의 비공식적인 벵갈리 교회가 토론토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부터 저는 벵갈리 처치 토론토 (BCT)의 집사로 섬겨오고 있으며, 최

근에 교회의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참여자 대부분이 지역 영어권 회중의 교인들이고, 벵갈리 처치 토론토는 아직 등록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에 한번만 교회로 스카보로 침례교회에서 모이고 다른 주일에는 줌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보로에 전시간 사역자가 있고, 매주 예배와 성경 공부와 주일학교 및 홈 모임과 다른 활동을 하는 온전히 등록된 벵갈리 교회를 세우려고 구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캐나다 다민족 크리스천 연합(CMCA)는 제 마음에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저와 제 아내 리파는 토론토에서 산 매우 초기부터 CMCA의 정헌범 목사님과 임재량 목사님을 알아왔습니다. 이들은 토론토에 있는 많은 종족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수년 동안 도와왔습니다. 저희 교회들 또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CMCA와 이들은 저희 교회 목회자 가운데 두 사람이 게이트웨이 세미나리와 협력하여 열린 “설교학-복음과 크리스천 설교”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이 과목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우리 교회에 또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교해야 할지 참으로 제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야지디 섬김(영락교회 팀) 소식

M가정: 2018년 교회 국내 선교 사역 보고를 통해 당장 도움이 필요한 Yazidi 난민에게 빵을 배달할 팀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참여한 야지디 사역이 어느새 2년반이 되었다. 우리가 돌보는 30대 싱글맘 M과 네 자녀, 그리고 시동생으로 구성된 이 가정은 처음 만났을 때 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 이들은 정보의 오류로 한동안 CCB(Canada Child Benefit)가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

기도 하였다.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M은 늘 대접하기를 즐긴다. 아이들은 영어가 많이 향상되어 엄마를 위해 통역사가 되어 준다. 시동생은 이발 기술이 남달라 야지디 아이들의 머리를 도맡아 잘라준다. 지난 2년간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파티, 리더십 캠프, 할렐루야 나이트, 뉴 라이프 페스티벌, 하우스 미팅, 수영장 파티 등에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지난 겨울

교회 청년들에게 매주 토요일 영어를 배운 일이다. 팬데믹으로 대부분 유학생이던 청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수업은 멈추었지만, 학습의 기회를 놓쳤던 아이들이 문자 습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다.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M가정을 돌보시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상처가 언젠가 주님으로 인해 회복될 날을 기대한다.
-김소연

Z가정: 똑똑. 비 오는 날.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노란 튜립과 우산. 문 뒤에 익숙한 얼굴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Z와 그녀의 아이들을 처음으로 직접 방문한 순간이다. 피할 수 없는 장벽들 -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함께 무언가를 시도했다: 영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티타임, 저녁 식사, 하물며 비즈와 네일 아트까지, 모두 다음 단계 -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비디오 시청, 성경 공부, 주일 학교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왔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결국 Z의 집에서 그것도 주일날 예배하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고통 받고 있고 만남을 대신해 보이스 메일이나 화상 통화로 소식을 나누고 있다. 단순히 전염병

때문이라,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거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분 안에서 자라게 하시게 것을 믿는다. 새로운 삶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요 4:24).
-이진희

야지디 섬김(영락교회 팀) 소식

K가정: 큰아들은 ISIS에 끌려가서 생사불명이고, 딸과 며느리(큰아들 부인)가 각각 2년간 ISIS에 잡혀 있다가 함께 캐나다에 오게 된 K와 부인 H는 ESL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아들의 실종과 딸, 며느리의 상처로 가슴앓이가 심한 H는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세 자녀 중 위의 아들과 딸은 각각 이라크에 가서 야지디 사람과 결혼한 후 다시 캐나다로 왔다. 결혼한 딸은 현재 9개월된 아들이 있고, 이들 모두 이라크에 있는 배우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막내 아들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남은 두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밤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온지 2년이 지난 이제서야 캐나다의 상황을 인식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모두 노력하고 있다.

L가정: K가정의 며느리로 남편의 실종과 ISIS의 상처로 슬픔이 있지만, 6살 아들과 곳곳하게 잘 살고 있다. 여동생 A와 함께 살다가 A가 결혼을 하면서 시댁 K가정과 함께 살고 있는 L은 우려와는 달리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아들이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행복해한다. L은 앞으로 영어를 잘해서 컬리지에도 가고 직업을 얻어 미래의 계획을 실현하

고 싶어하고, 아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

F가정: ISIS에 잡혀간 부인 F의 공개된 사진을 보고 남편 F가 부인 F를 구했는데, 함께 잡혀갔던 어린 아들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학대는 상처로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아들은 함께 모이기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 부인 F는 현재 셋째 아이를 임신중이어서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많이 밝아졌고, 한 생명이 더 태어남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기뻐하는 것 같다. F와 부인 모두 ESL수업을 듣지 않고 있고, F는 직업이 없다.

-이지현

W가족: 남편 P와 W의 관계가 나빠져서 이라크로 돌아가서는 소식조차 없다. 또한 P는 이라크에서 사업도 하고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들 가족에게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는다. W와 그의 세 딸들의 버려졌다는 상처와 분노를 씻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세 딸들

이 영어와 캐나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종교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답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길 기도한다.

S가족: 아무 의욕 없던 S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참여하여 성장하길 기도하며, 암담한 이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

의 은혜를 구한다.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그들을 충분히 돕지 못함이 부담되고, 내 생각과 내 힘이 앞서가기도 한다. 처음처럼,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늘 가난해지기를 기대한다.

-김지영

북미 각지의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 기도와 예배의 영적 씨름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연대하고 연합하는 기도 운동으로 북미 대륙에서 선교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완수할 마지막 선교 세대를 섬기고자 하나님의 선교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 “기도하는 사람들 (Praying People)”에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 임재량

할 수 있다 하십니다! CMCA 기도팀에 초청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양하였지만, 맘속에 계속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아! 이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성령의 깨달음,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할렐루야! 이제 가슴으로 알게 된 CMCA. CMCA기도 시간,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여러 소수민족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기도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비록 코비드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모여져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 박정숙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주신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만 갈 곳이 없으신가요? 캐나다 다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곳에서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바로 그 뜻이 그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 김광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참 좋은 신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몸 된 지체인 교회 식구들이 모두 모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마음으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박경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는 이 숨이 일상의 평범함이 아닌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호흡과 같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날을 작은 숨소리로 혹은 큰 탄식과 눈물로 주께 함께 구할 때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초청합니다.

- 김순덕

주님의 눈과 마음이 향한 열방과 사람들, 그리고 이웃하는 세계 모든 민족들을 위해 일상의 자리에서 주의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 CMCA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저 역시 모임 때마다 경험하는 기도의 힘으로 인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요! 불리던 이름과 이루어진 내용들이 지워지고 새로운 기도제목이 추가될 때마다 일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직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그분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이정임



CMCA 2020 Fall 기도 제목

캐나다 다민족 크리스천 연합은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에게, 디아스포라를 통해, 디아스포라를 넘어 총체적인 선교로 열방을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배가 운동을 일으키려고 캐나다 토론토를 거점으로 사역합니다.

북미에 거주하는 미전도종족들 가운데 도시 단위의 종족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을 통해 세계 선교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역선교의 비전과 전략을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해 실천하고자 합니다.

1. 북미의 지역교회들이 인종, 언어, 문화 및 교단적 차이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디아스포라 다민족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도시 단위의 선교적 운동체로 하나되게 하소서.
2. 광역 토론토의 지역교회들이 디아스포라 다민족 사역에 함께 참여하도록 동원되어 교회마다 재활동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캐나다의 복음적 교단들 가운데 종족교회 개척 배가 운동에 동역하는 교회들이 계속 일으켜지게 하소서.
3. 북미 캐나다로 이주하는 다양한 이민자들과 유학생 및 난민을 위한 다민족 사역과 일군들이 도시마다 일으켜지게 하소서. 광역 토론토에 주거 공간이 필요한 이들(난민)을 위한 트랜지셔널 하우스(모자익 하우스)를 세우게 하시고 일자리를 찾는 어려운 이들(난민)을 위한 커리어 센터(모자익 코넥션즈)가 운영되게 하소서.
4. 국제 유학생 사역(캠퍼스 교회 개척 배가 운동)과 난민 사역이 활발히 개발되어 종족교회 개척으로도 이어지게 하시고 개척된 각 종족교회와 연결되어 돕고 섬길 다민족 사역자들(모자익 프렌즈)이 어드밴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5. 게이트웨이 신학교, 하비스트 코넥션(미 동부에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 단체)과 함께 협력 하는 종족교회 사역자 및 다민족 사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에 참여한 뱅갈리 사람 마문, 필립과 페르시아 사람 나히드, 존이 2년의 교육 훈련 과정을 잘 마치도록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와 재정을 공급해 주소서. 인턴 목회자요 선교사로 이들 훈련생들이 사역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소서. 장기적으로는 어드밴스 센터(모자익 미션스)가 광역 토론토에도 세워지게 하소서.

6. 각 지역교회와 다민족 사역을 연결할 키맨(모자익 발런티어)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계속 발굴되게 하시고 다민족 사역을 위한 목요 기도팀에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소서. 1.5세 2세 한인 크리스천들 가운데 다민족 사역에 동역할 일군들이 일으켜지게 하소서.
7. 종족교회 개척 배가 운동을 위한 아웃리치팀(B.L.E.S.S.) 훈련에 각 종족교회들이 참여하도록 이끄시고, 매월 세째 토요일에 있는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야지디족 사역이 DBS를 통해 세계관을 바꾸는 사역으로 더 나아가게 하소서. 야지디 교회, 쿠르디쉬 교회, 아프카니 교회, 투르크 교회, 뱅갈리 교회, 시리안 교회(캠브릿지), 스리랑카 싱할리스 교회, 네팔리스 교회(다운타운/스카보로), 티벳탄교회(다운타운), 몽골리안 교회, 위구르인 교회 등이 개척되도록 역사하소서.
8. 페르시아인 삶의교회의 나히드(A), 미나, 하니에, 저스틴 & 니나, 나히드(S), 이산(파룩), 후세인 & 파티마, 아지타, 알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교회 개척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란에서 양육받고 있는 존 & 파티마 부부를 보호하시고, 뱍티즘 받은 아지타가 리더로 잘 세워져 많은 이들



CMCA 2020 Fall 기도 제목

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사용하소서.

9. 베트남교회(팀), 타이교회(윗타야), 미얀마교회(솔로몬), 네팔교회(피터), 아랍교회(이산), 콩고교회(임마누엘), 벵갈리 교회(로렌스), 페르시아교회(샘), 파키스탄교회(로빈), 조선족 교회(정성무), 짐바브웨교회(스티븐), 인도교회(샘 존), 에르뜨리아교회(미나시), 이디오피 아 교회(메브라투), 오타와 아랍 성경 교회(리차드)가 배가 운동의 비전을 가지고 각 도시 마다 종족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타이교회에 강력한 리더쉽을 세워주시며, 짐바브웨 목회자 스티븐이 재활훈련을 통해 스트로크로 부터 신속히 완전 회복되게 역사하소서. 교회 장소를 찾고 있는 인도교회와 에르뜨리아 교회를 품고 동역할 수 있는 협력교회를 찾아내도록 인도하소서.

10. 2020년 뉴 라이프 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도 운동, 구령 운동이 “당신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캠페인과 함께 각 도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페스티벌에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종족교회 간의 연합을 통해 교회의 하

나됨을 모두 다 누리게 하소서. 이름 불러 아뢰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소서.

페르시아: 하빕알라/캠란/모하마드/코보스, 바하르/미나/요세프, 파리사, 비타/하디, 세타, 데니즈/메흐디, 메홀다드, 아바/하메드/모웬/바히드/라민/아바스, 세디게, 제이넵, 마흐디드, 파티마/아미르, 엘함, 바히드, 모웬, 마수드(직장동료)/엘함/패리, 파자드/알리 & 파티마, 알라, 타하/에릭

아프카니: 쇼아입/하디/아르민/나집/아지즈

시리아: 무하마드 & 하난, 술레이만, 라마, 요세프/마흐무드 & 파티마

벵갈리: 임티아즈/밀리
투르크: 메흐메트/메흐드, 지납, 미웬, 하디, 아미르, 아라쉬

수단니스: 하니/알리/아흐마드

야지디: 하이더 & 쿠오지, 아라즈, 아자드, 카산드라, 쉬어자드, 아우즈, 리시아, 로즈/제이톤, 고제, 비얀, 칼라프, 이반, 지안, 디얄/다랄/루브나, 라윈/아말 /마커스, 안와르, 아말, 오메드, 아빈/카슈 & 카리다, 하디아, 알리, 케데르/베리반, 노리, 누한, 메리암 & 아제트/파라한 & 파토마, 다카스, 드나스/와다 & 파리



우.친.무 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영락교회 중보기도실
담당: 성철영 장로
(416-873-2001)

야지디 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20분
영락교회 성가대 B실
담당: 이지현 팀장
(647-468-6781)

다민족 전도팀

BLESS 훈련 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러브 토론토 오피스
담당: 박경은 팀장
(647-961-3356)

스, 아미라, 수하, 메라즈, 메이안/소산, 오마르, 쉬린, 미자르/다워드 & 사마, 바르와즈, 밀라나, 글루에

에르뜨리아: 오마르 & 레주

인도: 타리프 & 애니

싱할리스: 타렌두, 제랄드

르완다: 브라이언

소말리: 모하무드/모하마드



선교후원

기도로 동역하실 분들은 lordwinlim@gmail.com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한국 후원 계좌

KEB 하나은행 079-04-0000213-1 (임재량 김무용 선교사 후원)
 KEB 하나은행 079-04-0000425-4 (북미 디아스포라 사역 후원)

Canada에서 후원 방법

CMCA is registered as a Canadian charity through SIM Canada under its joint ministry arrangement, in which both organizations will work and collaborate together for Mosaic Cultural Ministry. Should you wish to receive a receipt please provide us with your address, if you want us to send it by mail, or your e-mail address, if you wish to receive it by our e-mail.

Donation Online www.sim.ca/john-chung

Send a CHEQUE Payable to: SIM Canada
 Write CMCA Account No./Missionary No. 046356
 Mail to 10 Huntingdale Blvd., Scarborough, ON M1W 2S5
 * SIM 발행 영수증은 개인 세무 보고서 사용

Or
 Payable to: Canada Mosaic Christian Alliance(CMCA)
 Mail to 36 Spruce Ave., Richmond Hill, ON L4C 6W1
 * CMCA 발행 영수증은 사업장 세무 보고서 사용 가능

Donation Form

Name	
Address	
Phone / e-mail	
Donation Amount	
Date	